

# ‘영암·무안·신안’ 쪼개져 타 지역구 편입... 전북 의석 -1

### 획정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한 국회의원장에 제출

####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 → 순천 갑, 을, 광양·곡성·구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전북 의석수 감소 등으로 호남 정치권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전북은 선거구 통합으로 지역구 한곳이 사라졌고, 전남은 지역구 대폭 개편으로 기존 지역구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구 분구 방안이 논의되면서 입지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 1곳(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전북 1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서울 1곳(노원 갑, 을, 병→노원 갑, 을), 부산 1곳(남구 갑, 을→남구), 경기 2곳(부천 갑, 을, 병→부천 갑, 을, 안산 상록 갑, 을, 단원 갑, 을→안산 갑, 을, 병) 등 6개 선거구가 합쳐진다.

반면, 전남 1곳(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순천 갑, 을, 광양·곡성·구례), 부산 1곳(북구·강서 갑, 을→북구 갑, 을, 강서구), 인천 1곳(서구 갑, 을→서구 갑, 을, 병), 경기 3곳(평택 갑, 을→평택 갑, 을, 병, 하남→하남 갑, 을, 화성 갑, 을, 병→화성 갑, 을, 병, 정) 등 6곳의 선거구는 나뉜다.

이에 따라 전남은 영암·무안·신안이 쪼개져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대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이 순천 갑·을로 조정되고 광양·곡성·구례는 그대로 남아 기존의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총선 4개월여를 앞두고 획정안이 제출된 데다, 특정 지역구가 사라지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안이라며 입지자 등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각각 다른 지역구로 흡수돼 사실상 현재 선거구가 공중분해된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치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며 “추후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거구를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획정위는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된 편파적인 획정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은 점,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검토 후 의미가 없으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본

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가결 전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했다”며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사·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사·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와 획정 기준에서는 문제가 반복되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감사원 정치보복 수단 전략 국조 추진”

### “정책·인사 안가리고 감사...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먼지떨이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과 정치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 계획 등 정치부터 인사까지 과거 정부 사안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복 감사를 벌였다”며 “특히 전 전 위원장을 향한 먼지떨이식 표적 감사는 도를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근대 부실, 2020년 추미에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에 따른 직권 남용,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 벌인 감사를 의미한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는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는 권력 남용”이라며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의뢰를 5번이나 거부해 독선과 오만의 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사무총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추락을 지켜보지 않겠다”며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만큼 조속히 국정조사가 합의하기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총선 브리핑

## 정준호 변호사, 9일 모교 동신고서 출판기념회

### 내년 ‘광주 북갑’ 출마 준비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출마를 준비중인 정준호 변호사가 모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정 변호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 동신고 체육관(장원관)에서 책 ‘갯기의 정치 정준호, 한다면 꼭 해냅니다’를 내고 ‘가볍게 삼세판’이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와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1·2부로 나뉘며, 1부에서는 질의응답, 2부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볍게 삼세판’은 정 변호사가 2016년 20대 총선부터 광주 북구갑 지역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온 데에서 따왔다.

정 변호사는 책에 자신의 삶과 정치적 소신을 피



력하고 다양하게 고민한 광주의 현장을 담았다. 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은 이들의 삶과 이야기를 듣고 엮었다.

그는 “대한민국 민생경제 회복, 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임기 내 복원된 호남 정치력을 기반으로 차기 정권 창출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며 “이제는 ‘갯기의 정치’ 완결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북구갑 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현재는 더민주광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

##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창당 시사

### 출당 청원 5일 오후 6시 현재 2만5000명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당내 통합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출당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 “당에서 풀어나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만5000명이 동의했다.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주당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계파로 분류되

는 인사들의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등을 비판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고 지적하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정치적 연대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TV

조선 유튜브 강연회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낮고, 신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전 대표가 현재 상당히 독한 말을 하는 건 총선 공천을 앞두고 비명계 확산에 대한 염려 때문일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하고 소통하지는 취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낙연·송영길 전 대표들이 신당을 언급한 것에 심정이 착잡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총공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기업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리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